

피그말리온의 재현

—텔레비전 드라마 <보그맘>과 <로봇이 아니야>속 여자 로봇

최민아*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반복되는 피그말리온 신화의 재탄생
3. 여자 로봇의 몸: 테크놀로지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4. 남성과 여자 로봇: 관계를 통한 로봇의 정체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자신이 만든 완벽한 여인상과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는 피그말리온 신화의 기본 서사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창작의 주체인 남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통제되는 객체인 여자를 그리며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여준다. 피그말리온 신화의 서사를 기반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보그맘>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엄마와 사랑스런 아내의 모습으로, <로봇이 아니야>에서는 사랑스런 여자 친구의 모습으로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며 인제든 남자 주인공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드라마는 여자 로봇의 여성성과 전형성을 부각시킴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재연하고, 감정의 이입이 어려운 낯선 대상으로 그려내 '타자성'을 부여한다.

<보그맘>과 <로봇이 아니야> 속 여자 로봇은 테크놀로지 기술의 유희과 함께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드라마 속에서만큼은 제어가 가능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자인 남성 캐릭터에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으로 그려진다. 실상 드라마 서사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창조자-피조물의 고정된 성역할과 이들의 관계는 기술과 문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투사하는 경향의 또 다른 표현으로, 여자 로봇은 "남성적 의지

www.kci.go.kr

에 의해 형상화되는 대상”¹⁾이며, 불완전한 기계적인 특성으로 끊임없이 창조자에 의해 점검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라마 속에서 여자 로봇들은 결국 창조자와의 감정적 교류으로 화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와 여성에 대한 불안감이 제거되고, 동시에 기존의 남성중심 권력관계는 다시 한 번 확고히 정립되는 것이다.

주제어: <로봇이 아니야>, <보그맘>, 여자로봇, 테크노에로티시즘, 피그말리온, 휴머노이드.

1. 들어가는 말

올해 초 지능정보산업협회의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명예 시민권을 받아 화제가 되었던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가 로봇의 기본 권리와 미래 사회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하는 모습이 보도되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소피아는 인간과 흡사한 꽤 다양한 표정으로 ‘로봇기본권’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개발사인 헨슨 로보틱스의 대표는 연신 흐뭇한 얼굴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은 신기함과 경이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그녀 머리 뒤쪽에 흰히 보이는 전자부품들이 그녀의 미소 짓는 얼굴과 대비되며 묘한 느낌이 드는 것 또한 감출 수가 없었다.

수많은 영화 속에서 인간과 교감을 하거나 갈등을 겪는 로봇들이 등장하는 서사가 이제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빠르게 발전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첨단기능들을 보며 실감하게 된다. 영국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데이비드 레비(David Levy)는 욕구를 인식하는 능력과 대처 능력이 뛰어난 로봇은 배려를 가로막는 이기심이 없어 인간의 심리적인 위안을 로봇이 더욱 잘 충족시킬 것이라며 2050년이면 로봇과의 섹스가 일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²⁾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슈

1) 윤조원, 「미적가치와 여성성의 교착: 피그말리온 신화를 넘어」, 『미국소설』 17권 3호, 미국소설학회, 2010, 72면.

2) 구본건, 『로봇시대, 인간의 일』, 어크로스, 2015, 192면.

퍼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는 어두운 미래가 영화 속에서 빈번히 그려지기도 하지만 로봇공학자들이 기대하는 목표도, 작가들의 이야기 속에 끊임없는 등장하는 인간의 욕망도 결국은 인간과 진정으로 교감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아니 4차 혁명을 앞둔 지금의 사회 속에서 인간과 테크놀로지간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ダイナ믹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게 될 것인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텔레비전 드라마 세 편이 제작되었다. MBC 방송국 제작으로 각각 작년 9월과 12월에 방영되었던 <보그맘>과 <로봇이 아니야>에서는 엄마 역할을 하는 로봇과 남자주인공을 돕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자 캐릭터로 각각 등장한다. 이 여자 로봇들은 자신을 창조한 남자 주인공들에 의해 주어진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진화해가며 결국에는 교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가장 최근에 방영되었던 KBS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는 코마 상태에 빠진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해 제작된 휴머노이드 남자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한 여자를 만나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을 배워간다는 내용이다. 이 남자 로봇은 SF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흔히 등장하는 과장된 남성성을 통해 힘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하던 남자 로봇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배우고 싶어 하고, 인간과 교감하고 싶어 하는 섬세함을 지닌, 인간보다 더 정감이 가는 로봇으로 그려진다.

이 세 편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사회 체제를 위협한다거나 전복시키려 하는 위험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드라마 속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역할 또한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진화된 관계를 보여준다.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거부감 대신 개인과 관계를 맺으며 진화하는 로봇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부가 되어가는 테크놀로지의 변화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드라마들에서 주목할 점은 흥미롭게도 세 편 중에서 여자 로봇이 등장하는 두 편 모두 피그말리온 신화를 연상하게 하는 플롯의 일부가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혹은 떠나버린 여자 친구를 그리워하며 그들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과학자의 이야기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형의 여인상과 교감을 원하는 신화 속 조각가의 이야기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고대신화 속에서 돌로 원하는 여인의 조각상을 만든 이야기가 현대 사회 속에서 기계적 여성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과학자의 이야기로 재탄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테크놀로지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때로는 에로틱한 것이 테크놀로지 혁신의 추진력”이었고, “석기 시대의 조각으로부터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에 이르기까지 거의 항상 에로틱한 것이 새로운 매체의 첫 번째 용법”³⁾이 되었던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성적 충동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에는 성이 없다하더라도 테크놀로지의 발전 과정이 가부장적 사회체제 속에서 성정치의 담론에 반영되어가며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볼 때 피그말리온의 원형은 지속적으로 재창작되어 스토리텔링을 이어갔으리라 짐작해 보게 된다.

그렇다면 현대 드라마의 서사 속에서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떠한 양상으로 그려지고, 변화하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여자 로봇이 드라마의 콘텐츠로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보그맘>과 <로봇이 아니야>⁴⁾ 두 편을 살펴

3) John Tierney, “Porn, the Low-Slung Engine of Progress,” *New York Times*, 1994.1.9, Section 2.

4) <로봇이 아니야>의 경우는 독립적인 캐릭터로서 여자 로봇이 아니라 여자 로봇과 이를 연기하는 여자 주인공이 함께 복합적인 캐릭터를 만들어간다. 여자 주인공이 로봇을 ‘연기’하는 것을 통해 극이 노리는 효과와 극 중 주변 인물들이 여자 로봇에 대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드라마의 콘텐츠로서 여자 로봇의 캐릭터와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져 이 드라마를 선택하였다.

보려고 한다. 먼저 피그말리온 신화가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 드라마들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범위를 좁혀 이 두 편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여자 로봇의 캐릭터를 분석한다.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들의 관계 변화에 따라 여자로봇을 다룬 드라마의 서사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통해 콘텐츠로서 인공지능 로봇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반복되는 피그말리온 신화의 재탄생

오비디우스(Ovid)의 <변신>(Metamorphosis)⁵⁾에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속한 세계 속의 여자들을 외면하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이상과 미적 조건에 가장 완벽했던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다. 급기야 그는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국 피그말리온의 기도대로 조각상 갈라테이아(Galatea)는 살아나 그 둘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여인상과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는 피그말리온 신화의 기본 서사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매력적인 소재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그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 가치와 이상들이 창조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창작의 주체인 남자의 관점과 능력에서 통제되는 객체인 여자로 그 관계가 한정되며 원형적 이야기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많은 극작가들이 다양한 비판적 시각으로 작품을 해석해왔는데 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1913)은 작가 나름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여 신화와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었다. 극중 음성학 교수 히긴스의 자신이 가진 신분, 학식 등을 이용하여 천한 신분의 교육받

5) 오비디우스, 천병희 옮김,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숲, 2014. 477면.

지 못한 일라이자를 영국 상류사회의 사교계에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신시킨다. 히긴스가 일라이자를 교육한다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보면 히긴스가 생각하는 일라이자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히긴스 어머니는 한 사람을 데려다 그에게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 줌으로써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건 계급과 계급, 영혼과 영혼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기도 해요.⁶⁾

일라이자를 변모시키는 과정을 통해 히긴스가 느낀 희열은 대상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우월함과 성취감에서 나온 자기만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언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까지 이룬 일라이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오만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히긴스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그의 곁을 떠난다. 신화와는 달리 일라이자는 히긴스가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안락함이나 사회적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그녀의 자유의지로 독립적인 결정을 한다. 이는 창조자인 피그말리온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신화의 관점이 피조물인 갈라테이아의 내면을 다루면서 피그말리온 신화의 한계, 즉 히긴스의 성격적 결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히긴스가 관찰하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관념들이 ‘살아있는 인형’ 혹은 ‘짐작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던 대상, 일라이자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것이다.⁷⁾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남성적 의지와 주체성이 예술적으로 여성성을 형상화하는 것이라 지적하는 것과 함께 지적되는 점은 남성중심적 인식론

6) 조지 버나드 쇼, 김소임 옮김, 『피그말리온』, 열린책들, 2011. 26면.

7) 1956년에는 버나드 쇼의 희곡이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브로드웨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64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할리우드의 자본주의적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라도 하듯 두 사람의 해피엔딩을 그렸다.

에서 야기 시키는 이해되는 않는 여성성에 대한 영역이다.⁸⁾ 알렉스 갈랜드 감독의 영화<엑스마키나>(2015)는 SF영화로 피그말리온 신화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천재 인공지능 개발자 네이든은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가진 인공지능로봇 에이바를 창조하고, 그녀가 보여주는 감정이 프로그래밍 된 것인지, 인간처럼 느끼는 감정인지 식별해내기 위해 프로그래머 칼렘을 고용한다. 이 튜링 테스트 과정에서 칼렘은 에이바에게 연민과 함께 끌리는 감정을 느끼고, 에이바는 칼렘에게 탈출을 도와 달라 요청한다. 이들이 함께 있는 비밀연구소는 마치 절대자같이 CCTV를 통해 늘 지켜보고 있는 네이든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형성된다. 에이바 전에 창조되었던 인공지능로봇들은 유리벽에 몸을 부딪쳐 자해하며 처참히 죽어갔는데 이들의 끔찍한 모습들은 창조자 네이든이 통제하는 견고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피조물에 대한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함께 전달한다.

자신이 직접 창조한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바에게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애정을 느끼는 칼렘의 모습을 통해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성의 불가해성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 판타지를 반영하여 만들어 졌다는 에이바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분간이 힘든, 기계가 흰히 비치는 기괴한 몸체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낯설고 두려운 대상으로 그려진다. 창조자 칼렘이 만들어낸 연구소는 가부장적 세계를 상징하며, 그 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네이든 역시 에이바에게는 동지일 수 없다. 그 세계에 갇혀있기를 거부하고, 칼렘을 살해하고 탈출하는 에이바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인공지능로봇이라는 과학의 영역이 더해진 미지의 괴물로 남성에게 더욱 위협적이고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존재인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피조물에 여성성이 더해졌을 때의 그 공포는 극에 달한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

8) 윤조원, 「미적가치와 여성성의 교차: 피그말리온 신화를 넘어」, 『미국소설』 17권 3호, 미국소설학회, 2010, 73면.

물이 자신과 닮은 영혼의 짝을 갈구하며 여자 괴물을 그토록 원했지만 살아나기도 전에 프랑켄슈타인에 의해 파괴된 이유도 남성중심사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차마 탄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⁹⁾

신화 속 창조자 피그말리온과 조각상 갈라테이아의 관계에 대한 서사는 버나드 쇼의 작품 속에서는 남녀 간 성과 계급의 차이를, 현대의 드라마 속에서는 인간과 AI라는 두 존재 사이의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신화를 재현한다. 생명 창조라는 인간이 넘볼 수 없는 능력을 끊임없이 꿈꾸었던 이들에게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신화일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의 혁명으로 인해 인간과 흡사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신화는 과학의 힘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다 기술적이고 섬세해진 테크놀로지는 예술의 영역과도 흡사한 탐닉의 단계로 점차 발달하게 되었다.

3. 여자 로봇의 몸: 테크놀로지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클라우디아 스프링거가 정의한 테크노 에로티시즘이 20세기 서구 문화에 그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산업 시대에는 속도와 힘을 가진 유선형의 자동차가, 20세기 말에는 극소 전자 회로의 컴퓨터¹⁰⁾와 더불어 여성성을 가미하여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크노 에로티시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사실상 최초의 여성 로봇이 캐릭터로 나온 영화는 1927년 독일영화로, 이것은 최초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한 영화이기도 하였다. 프리츠 랑(Fritz Lang)의 <메트로폴리스>¹¹⁾는 미래 도시로 기계에 둘러싸

9) 신성환, 「감각과 인식의 욕망기관으로서의 인조인간 형상연구」, 『문학과 영상』 12권 2호, 문학과영상학회, 2011, 396면.
10) “욕망의 테크놀로지 대상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20세기초 이래 테크놀로지가 예술화하면서 종종 테크노 에로틱한 충동이 표현되었다”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정준영 역, 『사이버에로스』, 한나래, 1998, 15-16면.

여 생활하는 노동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 마리아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파괴적인 성향의 로봇 마리아가 등장한다. 메트로폴리스 시장의 아들 프레더는 인간 마리아를 보고 그녀의 매력에 빠지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십분 활용하여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위해 이용한다. 그리고 로봇 마리아는 스트립댄스 파티에서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관능적인 춤을 추며 등장하기도 하고, 시장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한다.

이 두 마리아는 이름에서도 그 상징성이 짐작되듯이 성서 속 예수의 어머니인 순결한 이미지의 마리아와 바빌론의 창녀 마리아를 연상하게 한다. 검소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인간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그녀 주위로 환한 빛과 함께 어린이들에 둘러싸여 온화한 미소를 짓는 그녀가 반복되어 보여 진다. 반면에 로봇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 중 그녀의 위험한 이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형상화시킨 부분은 그녀가 메두사를 떠올리게 하는 용과 뱀 모양의 탈 것을 타고 춤을 추는 것이다. 머리에는 부채모양의 왕관을 두르고, 몸에 밀착된 의상은 주요 부위를 가린 채 외형적 곡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메탈외형으로 움직임이 투박하고, 돌출한 가슴과 둥근 골반만으로 여성로봇이라 짐작했던 마리아가 이 장면에서는 그녀가 얻은 생명력을 보여주듯 관능적인 몸으로 유혹적인 춤을 추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로봇 마리아와 함께 기이하게 부각되는 것은 춤추는 그녀의 몸을 둘러싸고 숭배라도 하듯 손을 뻗어 환호하는 남성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메트로폴리스의 권력을 가진 지배층으로 지하세계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 엘리트 집단이다. 화려한 로봇 마리아의 춤의 이면에는 로봇 마리아가 가진 테크놀로지에 대한 유용성과 여성적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이 은유되어 보여 진다. 비록 남성들은 그녀에게 환호하고 있지만 그 집단이 만든 기

계화된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로봇 마리아는 악역으로 철저하게 이용되는 것과 동시에 그녀의 몸은 그 지배층의 성적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 NBC 텔레비전에서 1992년 방영했던 <맨과 기계>(Mann and Machine)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여성성이 보다 덜 위협적인 모습으로 결합된 여자 로봇 이브 에디슨이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의 경사로 등장한다. <메트로폴리스>의 마리아는 악의 화신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지지만 이브는 동료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함께 돕는 역할로 천진난만한 순수함을 가진 로봇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아이같이 순진무구한 행동과 대비되게 그녀는 소매가 드러나는 검은 원피스나 흰색에 어깨가 드러나는 등 몸매의 곡선이 선명히 나타나는 의상을 주로 입는다. <메트로폴리스>의 여성 로봇처럼 통제가 어렵다거나,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과 학습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유연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이브의 캐릭터성은 MBC드라마 <보그맘>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보그맘과 매우 흡사하다. 천재 로봇 개발자인 최고봉이 만들어낸 보그맘은 사이보그(cyborg) 엄마의 줄임말로 아들 최윤의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도록 만들어낸 로봇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결같은 표정을 유지하는 보그맘 역시 성인과 같은 외모라 할지라도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아이처럼 단순하고 천진하게 반응한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여백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특성과 함께 여자 로봇이 갖는 육체적인 매력은 여성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그맘은 죽은 자신의 아내의 외모를 본떠 만들어진 로봇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풍성하게 치렁치렁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인형처럼 잘 손질되어 있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는 그녀의 완벽한 비올과 곡선을 드러내기 위해 충분히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사건이 전개되는 내내 로봇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외모는 헝클어지는 법이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한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엄마들은 보그맘을 꿀탕 먹이기 위해 그녀들의 아이들

을 전부 보그맘에게 맡기고 보그맘이 지쳐 나가떨어질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로봇인 그녀는 지칠 턱이 없고, 그녀의 외모 또한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모습을 유지한다. 육아에 지쳐 외모를 가꾸지 못하는 현실의 엄마 대신에 넘치는 에너지와 모델 같은 외모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그맘의 몸은 현대자본주의 소비문화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몸으로 그려진다. <로봇이 아니야>에 등장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지3 역시 창조자인 남성의 판타지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이라 할 수 있다. 공학박사 홍백균 박사가 대기업의 지원금을 받고 만든 이지3는 마치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았거나 결별에 대해 복수라도 하고 싶은 듯 헤어진 여자 친구 조지아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분홍색의 짧은 원피스를 단정히 입은 로봇 이지3의 외모는 남성의 로망 속에 나올 법한 청순한 여자 친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배달되기 전, 동료가 맥주를 쏟는 실수로 회로가 망가져 전 여자 친구 조지아에게 로봇의 대역을 부탁하게 된다. 조지아가 로봇인 척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조지아는 이 로봇의 역할을 위해 그 인형 같은 외모를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이처럼 여자 로봇은 그 이름들을 작명하는 데에 있어서 원형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하기도 하고, 주어진 역할에 따라 그 인물의 상징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메트로폴리스>에서 로봇 마리아는 창녀 마리아로 세상의 악의 근원처럼 형상화되고, <맨과 기계>에서 이브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라는 이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그맘은 아이에게 헌신적인 엄마로서의 역할을, 이지3는 로맨스라는 드라마의 특성에 따라 이상적인 여자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여자 로봇들은 이름과 역할에 따라 전형성을 가지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규정하고, 요구하는 필요를 성실히 수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부장적인 룰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여성성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몸으로 성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물리적 육체가 새롭게 정의되고, 보여 지고 있는 데 반해 여성 육체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자연적, 성적, 재생산적”이라는 문화적 기호는 여자 로봇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관습적인 통념을 반영하는 젠더화된 육체로 그려지는 것이다.¹²⁾

극 중의 다른 인물들이 로봇인 보그맘과 이지3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이 여자 로봇들의 수동적인 몸을 통해 이상적인 여성상을 투영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봇이 아니야>에서 흥백균 박사가 이끄는 연구원들은 “추가 개발비를 타면 너에게 C컵 가슴을 선물할 것”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이지3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보그맘>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최고봉이 몸을 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욕실 앞에서 보그맘을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된다. 욕실 안에 있던 보그맘의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최고봉은 보그맘을 안고 머리를 감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작 최고봉이 하려는 것은 단지 머리를 감겨주려던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최고봉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보그맘의 수동적인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다시 에로틱한 상황을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창조자의 도움 없이는 머리를 감기도 힘들고, 그의 생각에 의해 신체의 사이즈를 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철저히 수동적인 여자 로봇의 몸, 아이를 기르고, 정서적인 필요와 성적 판타지까지 채워줄 수 있는 여자 로봇의 기능은 완벽한 통제권을 상징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욕망이며, 현재에도 존재하는 피그말리온의 미적 기준이자 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성과 여자 로봇: 관계를 통한 로봇의 정체성

인간 내면의 두려움이나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로서 인간과 흡사하게 생긴 로봇들이 작품 속의 주체로서 인간과 맺는 관계 안에서 고민하고,

12) Anne Balsamo,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p.9.

의미를 찾으며 변화하는 서사들은 이제는 그다지 낯선 이야기는 아니다. 로봇들은 “동시대의 인간화의 산물인 동시에 당대의 인간성에 의문을 던지는 형상들”이며, 이러한 타자의 모습을 통해 그 속에서 보이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¹³⁾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1999)은 공정상 의 결합으로 인해 호기심을 갖게 된 가정용 남자 로봇 앤드류가 인간을 사랑하고, 자유의지를 갈망하다 결국 인간이 되고자 늙어죽는 것을 택하는, 로봇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이 분한 남자 로봇 앤드류는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다뤄졌던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남성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강하고, 우람한 과장된 남성의 육체나 성적 매력을 전하지도 않는다. 드라마의 서사에 있어서 여자 로봇의 시각적이고, 육체적인 매력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과 달리 앤드류의 몸은 남성성과 분리되어 고려된다. 로봇 앤드류는 기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덜 기능적인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인간과 로봇의 경계, 그 기본권에 대한 문제까지 담론을 확장시킨다. <바이센테니얼 맨>처럼 로봇의 정체성, 나아가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을 다루는 드라마에서 여자 로봇이 주인공이 주역으로 그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KBS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역시 감정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는 로봇과 그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여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냉혈한 인간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따뜻한 성품의 남신³⁾ 역시 남자 로봇이다. 이러한 드라마 속의 남자 로봇은 분명 ‘타자’이기는 하지만 인간을 투영하는 캐릭터로 똑같이 생긴 로봇과 인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 스스로에 대한 고찰을 돕는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여자 로봇이 갖는 ‘타자성’은 남자 로봇이 담당하는 ‘타자성’보다 훨씬 더 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때로는 감정의 이입이 어려운 낯선 대상이 되기도 한다. <로봇이 아니야>는 여자 로봇을 연

13) 신성환, 「감각과 인식의 욕망기관으로서의 인조인간 형상연구」, 『문학과 영상』 12권 2호, 문학과영상학회, 2011, 396-397면.

기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로 드라마의 전개에서 로봇 이지3와 인간 조지아의 존재적 경계가 이미 뚜렷하게 나뉘어져 진행된다. 여자 로봇이 캐릭터로서 뚜렷한 주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이지3가 갖는 고뇌나 욕망은 들여다보기가 힘들고, 드라마의 의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 조지아가 여자 로봇의 연기하는 것을 통해 여자 로봇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주변의 기대와 바운더리는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주입된다. 조지아의 행동과 이미지는 극적 환상 속에서 교묘히 이지3의 것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보그맘>에서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보그맘은 주제로서 드라마의 중심에 서있다고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캐릭터로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고민할 만큼 지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지3와 보그맘 모두 욕망의 대상으로는 그러하지만 인간을 닮은 개체로서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과 갈등을 발견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 속에서 성차로 인해 로봇 캐릭터의 한계를 보여주는 서사를 보면 인공지능의 젠더와 연관된 사회적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라마 속에서 로봇의 젠더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여성의 기억이 여성의 몸에 있으면 여성 로봇이, 남성의 기억과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남성 로봇이 된다.¹⁴⁾ 문제는 여성 로봇에게 심기어진 이 '여성의 기억'이란 것이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규정지어지는 혹은 기대하는 여성의 역할로 보여 진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설계할 때 남성의 목소리는 푹 푹하거나 권위 있는 존재로, 여성의 목소리는 보조나 안내를 받을 때에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¹⁵⁾는 성 편향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4)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인공지능의 젠더가 결정되는 방식은 SF장르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기억과 육체는 로봇의 젠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필립K.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를 원작으로 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영화 <블레이드 러너>(1982)에서 잘 드러난다. 기억과 육체에 따라 뚜렷한 성별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 성별에 따라 남성로봇은 전투를, 여성로봇은 섹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고정관념은 인공지능의 젠더에 무의식적으로 이용되고, 드라마의 캐릭터로서 로봇의 젠더 역시 왜곡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보그맘>의 서사에 있어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축은 보그맘이 집 밖에서 엄마의 역할을 위해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얻고,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집 안에서 자신을 개발한 최고봉과의 관계를 통해 아내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다. 보그맘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녀를 질투하며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도도혜로 그녀는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가 최고봉의 아내를 좋아했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증오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최고봉이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인 도도혜를 비롯해 구설수지, 부티나 등 ‘엘레강스 맘’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것만 같은 열혈 엄마들로 이들 사이에는 재력과 미모에 따라 철저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서로 친한 듯 하지만 막상 이들 내부에는 서로를 밟고 넘어지게 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를 통한 사치와 과시욕은 이들의 속물근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감정의 몰입이 없는 보그맘으로 인해 이들의 모습은 보다 객관적으로 비춰지고, 보그맘의 위치 역시 지속적으로 ‘타자’임과 동시에 엘레강스 맘들 사이에도 끼지 못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보그맘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고, 주어진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내는 부분들은 사회 속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나 차별 등을 실감하는 시청자들에게 통쾌감을 준다. 하지만 이 엄마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들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가 곧 자녀의 성과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기대와 평가 때문이다. 엄마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화된 로봇 보그맘과 이들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비교되고, 가부장적 사회의 틀

15) Matt Simon, “It’s Time to Talk About Robot Gender Stereotypes”, *Wired*, 2018.10.3 <https://www.wired.com/story/robot-gender-stereotypes/> (Accessed 2018.10.15)

안에서 좋은 엄마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버둥거리는 이들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역시 어느 측면에서는 다른 이들의 뜻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해 움직이는 로봇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야기의 다른 축은 그녀의 창조자인 최고봉과 얽힌 에피소드로 이 두 캐릭터의 관계와 감정의 진전을 다루고 있다. 드라마는 좌충우돌하는 보그맘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녀가 기계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은 그녀의 창조자 최고봉이며, 그녀의 불완전함을 항상 채워주는 인물이다. 사실상 '실험체'에 불과했던 보그맘을 실전에 투입하여 그녀가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관여하는 최고봉에게 보그맘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최고봉은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보그맘과 함께 생활하며 그녀에게 생기는 감정에 스스로 당황스러워 하다가 자신이 차사고가 날 위기의 순간에 보그맘이 대신 차에 치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녀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 고치기 위해 인간임을 쓴다. 희생을 통해 상대를 구해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보그맘은 비로소 자신이 최고봉과 교감할 수 있는 인격체임을 보여준다. 보그맘은 감정을 배우면서 최고봉과의 스킨십 때마다 몸에 열이 나는 것을 감지하고, 결국은 발열반응으로 인한 회로 이상으로 빈번한 오작동을 경험하게 된다. 로봇에게 오류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처럼 비논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설정은 흥미롭다.

보그맘은 다른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로봇처럼 인간과 구별되는 자신의 기계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인간과 갈등을 빚거나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지도 않는다. 내부에 프로그래밍 된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녀의 능력은 결코 창조자나 사회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차사고 이후 기계적 오류로 인해 아들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그맘은 자신이 폐기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실감한다. 엄마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자신은 더 이상 최고봉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물상을 찾기도 하고, 한강에서 죽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고봉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을 처음으로 표현하는데 이 욕망은 아들과 최고봉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적인 고민 없이 엄마의 역할만을 위해 단편적인 임무 수행 능력만을 보여주었던 보그맘이 최고봉과의 관계에서는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와 최고봉과의 관계에 대해 사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피조물인 보그맘이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창조자와 그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에 대해 고찰하는 영역까지 사고가 진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그맘>은 감정을 가지고 교감을 원하는 이들을 인간처럼 인격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나 로봇 인권에 대한 담론까지는 접근하지 못한다.

<로봇이 아니야>에서는 인간 조지아가 로봇 이지3의 대역을 하면서 로봇으로서 이지3의 캐릭터성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로봇인 척 하는 조지아의 캐릭터성이 중점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조지아가 이지3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꺼이 로봇과 오버랩 되는 조지아의 혼합된 캐릭터를 극적 상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지3의 창조자는 공학박사는 홍백균이지만 이지3의 소유자는 김민규이며, 조지아는 인간이지만 경제적인 형편과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홍백균에 의해 고용되고, 김민규 앞에서 로봇인 척해야만 하는 수동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잘생긴 외모와 기업 경영자에, 재력까지 갖추고 있는 김민규의 사회적으로 완벽한 조건과 대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열혈 청년 사업가라는 조지아의 상황은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성 캐릭터 앞에 수동적인 수밖에 없는 여성 캐릭터 설정이다. 김민규와의 첫 만남에서 이지3는 “절 길 들여주신다면 전 주인님을 위해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조지아가 로봇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상대 남성에게 복종하

는 로봇 이지3의 여성적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투영한다. 시청자들이 아슬아슬하게 신분을 숨기는 조지아의 극적 상황을 즐기도록 하면서 조지아의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 때문에 남자 캐릭터의 지시적이거나 강압적인 대사도 용납된다는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조지아는 로봇을 연기하면서 약간의 어색한 동작을 제외하고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인간 조지아의 특유의 재치 있고 유머스러운 말투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메트로폴리스>에서 인간 마리아와 로봇 마리아에게 극단적이고, 원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투사시킨 데 반해 이지3의 전형성은 조지아의 캐릭터와 혼합이 되면서 인간의 모습과 좀 더 가깝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진다. 자신이 개발한 조명을 세상에 내놓고자 좌충우돌하며 노력하고, 억척스럽게 일하는 조지아의 모습은 수동적인 이지3와 대조적으로 생동감 있게 부각된다. 이 대조로 인해 조지아는 여성 캐릭터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뚜렷한 주관관을 가진 캐릭터로 그려지지만 극의 진행에 따라 이지3와 이미지가 결합하는 순간엔 철저히 주체성을 배제한 순종적인 캐릭터로 전환된다.

이지3와 종속관계인 남자 주인공 김민규는 이익을 위해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인간 알러지’라는 병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의 상처를 상징하는 듯한 그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그에게 감정적 위로로 도움을 주는 이지3/조지아와 김민규의 관계는 그나마 균형을 가지게 된다. 김민규는 이지3가 인간인 줄을 모르고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조지아 역시 가까이서 김민규의 아픔과 진심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자신을 로봇인 척 하는 것으로 인해 김민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한 조지아는 로봇행세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점차 여자 캐릭터로서 주체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로봇과 정체성이 분리가 되면서 정작 로봇 이지3는 주체성을 가진 캐릭터로 발전하지도 못하고, 캐릭터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지3의 창조자 홍백규는 조지아가 로봇으로 행세하게 만들기 위해

김민규와 이지3/조지아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지3를 고치고, 지키는 장면들로 그의 소유권을 확인시키며 서사 전체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지3는 홍백규에게 종속된 캐릭터로 전락한다. 결국 <로봇이 아니야> 속의 이지3는 여자 로봇으로서 확고한 캐릭터성을 가지지 못하고, 인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사 속 관계로 인해 진부한 소재의 대상으로 그치고 만다.

5. 맺음말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를 조각해내는 예술 행위 속에서 창작자인 주체와 예술 대상이 타자가 되는 역학관계는 현재의 과학 사회 속에서 로봇과 로봇의 창조자의 서사로 거듭 재탄생하고 있다. 피그말리온이 만들었던 조각상의 외면적 특징으로 부각되었던 이상적인 여성상은 남성주의 사회의 관점에서의 섹슈얼리티를 강화하고, 완벽함을 상징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전형적인 여성성의 모습을 가진 캐릭터로 재탄생하였다. <메트로 폴리스>에서 보여주었던 선과 악을 의미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보그맘>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엄마와 사랑스런 아내의 모습으로, <로봇이 아니야>에서는 사랑스런 여자 친구의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든 남자 주인공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처럼 드라마는 여자 로봇의 여성성과 전형성을 부각시킴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재연”¹⁶⁾한다.

전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영화보다 안전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여자 로봇은 테크놀로지 기술의 유혹과 함

16)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앞의 책, 202면.

게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드라마 속에서 만큼은 제어가 가능한 사랑스러운 존재로 그려지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진지한 소재나 주제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가벼운 로맨스 속 캐릭터로 사용된다. 사실상 텔레비전 멜로드라마는 피그말리온의 신화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부자인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차림의 여자 주인공을 백화점으로 데려가 비싼 옷으로 변모시키는 장면은 멜로드라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것으로 창조자인 남자의 능력과 위치를 부각시키는 피그말리온 신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로봇이 아니야>에서도 멜로드라마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남자 주인공과 '경제적 여건은 좋지 않지만 긍정적 성격의 캔디형'¹⁷⁾인 여자 주인공의 관계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낸다. 90년대 초반 텔레비전 드라마의 여성 이미지 연구에서 '의존적, 순종적, 비야심적, 추종적'¹⁸⁾ 성향을 보여주는 캐릭터의 모습을 25년이 넘는 현재의 드라마 속 보그맘에게서 발견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왜 로봇에 있어서의 젠더 의식은 뒤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멜로드라마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변화도 필요한 일이지만 오랜 세월 누적된 고정관념을 손쉽게 여자 로봇에게 덧입혀 퇴보된 캐릭터로 창조하는 것 역시 이제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드라마 속 인간이 자신이 만든 로봇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대상과 교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테크놀로지로 인한 열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드라마 서사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창조자-피조물의 고정된 성역할과 이들의 관계는 실상 기술과 문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여성에게 집중적으

17) 박은하,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2014, 57면.

18) 위의 글, 57면.

로 투사하는 경향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자 로봇은 “남성적 의지에 의해 형상화되는 대상”¹⁹⁾이며, 불완전한 기계적인 특성으로 끊임없이 창조자에 의해 점검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드라마 속에서 여자 로봇들은 감정의 진전에 따라 주체성을 일부 획득하는 듯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행위는 남성 주인공들이다. 결국은 창조자와의 피조물인 여자 로봇의 감정적 교통으로 이들의 관계는 화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와 여성에 대한 불안감이 제거되고, 동시에 기존의 권력관계는 다시 한번 확고히 정립되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로봇의 등장은 매우 흥분되는 사실이지만 이들이 펼쳐낼 미래와 가능성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 또한 두렵고, 기대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어쩌면 현실 속에서 AI 로봇들은 다면적인 고민이나 성찰에서 나온 여러 질문을 던질 것도 같지만 정작 드라마 속의 로봇은 늘 주체가 되는 인간으로 돌아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소재로 쓰이는 데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미래에 대한 탐색과 고민은 현실에서도 주어진 과제인 만큼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와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확장된 세계관, 나아가 로봇의 주체성이나 권리 등을 다룬 드라마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9) 윤조원, 「미적가치와 여성성의 교차: 피그말리온 신화를 넘어」, 『미국소설』 17권 3호, 미국소설학회, 2010, 72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MBC 드라마 <보그맘>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ent/borgmom/>
MBC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drama/robot/>

2. 단행본

- 구본건, 『로봇시대, 인간의 일』, 어크로스, 2015.
오비디우스, 천병희 옮김, 『원전으로 읽는 변신이야기』, 숲, 2014.
조지 버나드 쇼, 김소임 옮김, 『피그말리온』, 열린책들, 2011.
클라우디아 스프링거, 정준영 역, 『사이버에로스』, 한나래, 1998.
Anne Balsamo,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6.
Teresa de Lauretis, *Technology of Gende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3. 논문 및 기타

- 박은하,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2014.
신성환, 「감각과 인식의 욕망기관으로서의 인조인간 형상연구」, 『문학과 영상』
12권 2호, 문학과영상학회, 2011
윤조원, 「미적가치와 여성성의 교착: 피그말리온 신화를 넘어」, 『미국소설』 17
권 3호, 미국소설학회, 2010.
Fritz Lang, *Metropolis* (DVD, Deluxe Edition), 2002.
John Tierney, “Porn, the Low-Slung Engine of Progress”, *New York Times*,
1994.1.9,
Matt Simon, “It’s Time to Talk About Robot Gender Stereotypes”, *Wired*, 2018.
10.3, <https://www.wired.com/story/robot-gender-stereotypes/> (Accessed
2018.10.15)

Abstract

Revival of Pygmalion—Female Robots in Television
Drama <Borgmom> and <Roboti Aniya>(It's Not a Robot)

Choi Mina

Television drama <Borgmom> and <Roboti Aniya>(It's Not a Robot) are based on the myth in which Pygmalion falls in love with a ideal woman who he created. Revealing their sexuality, female robots in the dramas are illustrated as a perfect mother or a lovely girl friend reinforced stereotypes and femininity. Basically women robots can be read as temptation of technology and incomprehensibility which are double threat for man centered society. However, female robots in the dramas are created as a controllable and dependent character and are granted "otherness" who people hardly can sympathized with. The man who created the female robots always take care of them and become leading roles, assuring patriarchal rules. Even though their fixed positions between a creator(man) and a creature(woman) are problematic, people's fear and horror of technology and uncertain future are reflected on their relationship. In the end of the dramas, finally female robots are united with men therefore doubt and fear for woman and technology are gone which means patriarchal rules are firmly rebuilt and nothing can be changed.

Key Words: <Borgmom>, Cyborg Woman, Female Roobot, Humanoid Robot, <Roboti Aniya>(It's Not a Robot), Techno-eroticism, Woman Robot

접 수 일: 2018년 10월 30일

심사기간: 2018년 11월 18일 - 12월 20일

게재결정: 2018년 12월 21일